◇우리교회 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충 현

THE CHUNGHYEON TIMES

1972년 7월 9일 발행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윤 종 순
서울중구충무로 5가50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 현 교 회
(32) 4427 · 9728

(시)

그대 선 자리

존 옥스남

그대 선 자리가
하찮은 곳인가?
정성껏 가꾸라!
그 분이 그댈
거기 세우셨나니.

그대 선 자리가
훌륭한 곳인가?
정성껏 지키라!
그 분이 그댈
거기 세우셨나니.

그대 선 자리가
어떤 곳이든
그곳은 그대의 것만이 아닌
그 분의 것
그 분이 그댈
거기 세우셨나니.

□설 교□

박넝쿨의 교훈

요나 4장 6—11절

백 성 룡 목 사

구약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는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앗수르 나라의 서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만는 일을 알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요나 선지자를 다시 불러 훌륭한 선지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박넝쿨을 주시려셨습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 그늘 아래서 더위를 피하고 있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런 날 아침 요나는 박넝쿨이 시들어 말라져서 이제는 더위를 피하는데 쓸모없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일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스운 짓을 보시자 조용히 요나에게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심상치 아니하랴"(욘 4:10, 11)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때 비로소 선지자로서 크게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끝은 없이 이 말씀으로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더 이상 항의할 말이 없을 수 없고 참구하는 겸손이 인성과 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기 전에는 끝일 이유를 말하던 요나였습니다.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피리에서 전파를 수장하는 것 이었던 것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을 때에 처음에는 순종치 않았으나 주변에는 순종하여 니느웨 존성이 회개하는 것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요나로서 큰소리일 만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로 되어진 일인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한 후에 한 것을 한 것 뿐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눅 17:11)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저장을 하실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요나가 박넝쿨을 사랑함의 생명보다 이 성읍이라는 때의 큰 성읍의 보배로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성자의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신 것인데 요나는 그 일을 그리 대단히 않은 일로 여겼습니다. 다만 자신의 유지를 위하여 수고하고 자신을 유지하게 해 주는 그 박넝쿨에만 관심이 있던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의 요나보다 못해 많게 자랑의 생명보다 박넝쿨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의 중건해준에 참여치 아름을 수도로 약화시키는 일과 같은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금전거래로 시중 간에 분주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주나 하루이나 일을 하나서 일하라 보면 하나님께서 바치시는 생명보다 박넝쿨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성이 다 구원 받기를 원하시면서도 죽음과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0여만 생명보다 많은 육축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성에는 약 100만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라 합니다(요나와 주석) 그 중에서 어린이들과 노약자 10여만 명과 사람들 때문에 시주인가나 한 육축들에 대하여 더 관심이 가셨는 것은 곧 내 일처럼 회개함을 보시면 육축만도 못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리는 하나님의 세상 일에 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공일가가 주리의 공일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그 영원과 다름없이 자주들 분별치 못하는 생명들을 다시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을 권고하시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기성세대들이 어린이들의 영혼에 대하여 진로 관심을 주지 않고 지혜 앞에서 좋은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때의 장래가 크게 염려가 됩니다.

주리 선자의 가정에서는 물질이나 그 밖의 경제고통에 중점주고 소홀한 노의라든지 인물에 소홀이 되는 그림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문명일이 노의를 부르거나 나쁜 그림을 붙여주거나 어린이들이 읽어서 된 유치의 신지는 주간잡지들이 함부로 방에 굴러다니는 것을 대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모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청소년소녀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중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주관만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넝쿨의 교훈을 받읍시다. 요나처럼 해서는 안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생명들을 사랑하는 주보님들과 전생님들이 됩시다. (본교의 주목사)

****

(명) (상)

어제는 하나님께 준이리라고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은 성령 안에 살자.

****

안식일과 주일

정 상 우 목 사

안식일은 하나님과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표가 되는 날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경외심을 표시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실천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 안식일(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실천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아래의 세 가지 제목으로 말하고자 한다.

I. 안식일이란 어떠한 날인가?
II.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진 성경적인 근거.
III. 어떻게 주일을 지킬 것인가?

I. 안식일이란 어떠한 날인가?

안식일의 기원을 바로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가를 성경적으로 살펴보자.

1.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다(창 2:3)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역사를 6일 동안 마치시고 7일째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어 이 날에 쉼을 누리시며 하셨으니 하나님 자신이 일하신 이 날에 쉬심으로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제도는 창조역사 직후에 세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것이다. (창 8:10, 12. 창 29:27-28. 출 16:5, 23. 26-31. 20:10-11에 보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함)

호머(Homer)는 "그리고 제7일 주 성일이 됐다. 제7일은 거룩했다"라고 했다. 안셀(Anselm)의 말에는 "제 7일이 신성함은 히브리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역시 인증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동물에 이름에의 선두주자 그리고 순종했다"고 말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 제도는 창조의 기념일로서 거룩하신 주주시인 것이었다.

2.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이다(신 5:12-15)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심의 40년 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도 그 지키는 이유를 바꾸어서 애굽에서 구속받음을 기념하여 지킬 것을 명하셨던 것이다(이 사실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꾸어지는 중요한 성서적 근거가 된다).

3. 안식일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의 표징이 되는 날이다(출 31:13. 겔 20:1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여 언약을 세우신 이 언약의 표징으로 두 가지를 명하셨으니 성막(창 17:9-14), 둘째는 안식일인 것이다. 만약 이 표(징표)대로 하는 언약의 표징이요 안식일을 성별해서 하는 언약의 표징인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과연 표징이 무엇이겠느냐? 우리는 세례받는 일(이는 말씀과 믿음)이며 또한 주일을 지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생활이 한 번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주예한 표징이 되는 것이다.

4.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창 2:3. 출20:11. 막 2:27. 사 58:13-14)

"이 날에 복주어"의 「날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필자가 믿는 바로는 이곳 안식의 「날」 말인 듯 하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내리시는 것이다. 주리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들에 보은주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요한3서 2절), 또한 육체적으로도 성스로 건강의 은혜도 입어 일의 능률성이 되어 사업에도 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뜻이는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이요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심인 것이다.

창조역사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축복의 길이 있으니 곧 인생일을 지키는 일이요(창 2:3. 사 58:13-14), 호도하는 일(창 20:13. 겔 6:12), 신일로 드리는 일(말3:10)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섬기는 생활에서 기본적인 태도라 할 수 있고, 호도하는 일(그리고)은 성도가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에서 기본적인 태도라 할 수 있으니 11조 십일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로서 섬김을 배우는 생활의 기본적 의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5. 안식일은 예수님의 날이다(막 2:28. 마12:8. 눅 6:5)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세례나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지켜야 한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성자인 예 하나님의 2위로서 생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그의 부활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속사업인 것이다.

6.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바 영원한 안식 세계를 예표하는 날이다(히 4:3-11)

칼빈(Calvin)은 기독교강요 2권 8장 29절에서 "오늘의 주일을 안식하는 것은 앞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일 영원한 안식세계의 그림자로 상징되는 생활양태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일 하루를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영원한 안식세계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수 있겠는가(계 2:1-5).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화 안식의 날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의 신앙표현인 것이다. (본고의 부족)

※ 계연(계속)되오니 1년간 계속됩니다. ——편집자.

권찰들의 하는 일

김 제 창 목 사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 12 : 3)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세 가지만 말씀하면, 첫째 성도를 양육하고 둘째 교육을 바로하고 셋째 성령을 주려고 하는 데 있다. 이 세가지는 서로 떼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어느것 한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세 가지를 다 열거하기 전 먼저 교회가 알아야 주셔야고 경성하지 않겠는가. 이제 열거들의 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1. 시험의식을 분명히 가질 일

(1) 예수님의 영접에 응답하는 일이니(마 28 : 20). "이가 이르되 곧 무릇 모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그것을 지키는 이유를 알리기 위한 성령의 필요를 깨닫게 된다.

(2)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하는 일이다. "주님 주께 바울이 아나바 비의 말하되 주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것같으로 하여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러 성도로 다녀온 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행 15 : 36, 16 : 4-5).

(3) 성경의 교훈을 실천하는 일이다. "그리스도 들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않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 혹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이 망녕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 12 : 15-16).

(4) 살아 가장 많은 일이다. "거기 있는 자는 강물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 : 3).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떠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이키게 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이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약 5 : 19-20).

2. 권찰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1) 예수님의 마음 곧 성령을 수탁하는 마음으로 하자. 예수님께서는 나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다. 영혼의 고독을 버리시면서까지 하셨던 것이다.

(2) 어머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자. 내가 맡아보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였다.

(3) 가정에 들어가서 경건의 무릎 꿇게 할지(누 10 : 1).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영혼의 사신(messenger)이다.

(4) 젊은 영 청년에 희생의 정신을 다하자. 낙심한 자를 보면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하자.

(5) 숨은 일꾼을 찾아 내자. 예배가에 소홀한 자들을 찾아오도록 돕어 보는 일꾼들이 되지 않자.

(6) 남의 짐을 살가고, 든 거래를 살가고 거절은 자가 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여 모든 사람에게 존이 되어야 한다 (고전 10 : 31-33).

(7) 우리 내의 성도와 가정을 무비한 상이 좋은 일은 칭찬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는 위로하고 그 경성은 주시고 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여러 영적으로 퇴정하여 계난 당의 되어진 일들을 보고하여 서로를 알리는 일과 일으로 할 일을 의논한다.

권찰들의 사명이야말로 교회의 중대이다. 온 교회와 성도들은 이 큰 수고를 담당하는 권찰들의 노고를 섬은 이해하고 사랑으로 협조하는 버릇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본교의 구역사)

충현등산(표지) 사용 절차는?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수양회일을 비롯 회원에 충현등산(본교회 표지)이 있다. 교인가정의 상주가 그 가족을 충현 주신에 예배하기를 원하면 교회로 청원할 것이고 교회의 표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등록로 가서 예정하기를 얻어가 되어 그 후 충현등산이 있는 ㅁㅁ에 전시무소에 등록필으로서 사무실의 절차는 끝난다.

만일 교인가정에 상가가 생겨 교회에 보고하면 담당 교역자가 즉시 심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장례절차를 하는데까지 상가를 위하여 교회에 인상하는 날까지 다만 지역으로 교역자들의 인도로써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입관식과 발인식을 할 수 충현등산으로 운구가 되면 교역자의 집회 지시에 의하여 교회에 안장할 것이며 하관식을 거행한다.

장만 사용의 이용은 3일동안이며 그것은 인주에, 장미 및 화분, 비석과 교회는 등 경비의 중대이며 관과 영구차는 매일 가정에서 준비된다.

아내, 어머니, 좋은 이웃으로서의 선교사

코니 윌리슨

나의 희망은 선교지에서의 직업 활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대두되므로 나의 원할 방법은 변경되었다. 방학에서 남편 헨루드를 만나서 결혼했으므로 나는 새로운 결혼생활, 새 문화, 새 언어, 새 음식 모 새로운 문제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때때로 나와 남편 사이에는 희망이 맞지 않기도 했고 곤란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매주는 시간은 혼자서 기도와 고민을 하였다.

그러다가 아이가 둘이나 생겨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집에 돌아 남아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시간을 다 빼앗겼다. 희생적일하는 것 같아서 안심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보지 못 주셨다. 내 계획과 맞 일이 지 가져 일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다.

실제, 하나님은 나에게 남편을 위한 동역자가 선교사의 일임을 보여 주셨다. 나는 주인보다도 먼저 한 하에인 것이다. 남편과 나는 하나의 생명이다. 남편에서 주리는 지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였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생활방식과 욕망이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주리는 서로 서로 조화가 없는 전일적인 생고가 필요하였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남편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는 이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므로 나는 그의 세상을 비워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성해 주신 나의 남편을 위한 아내로서 나는 선교사의 직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들에는, 나는 어머니로서의 선교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두 아이 도리와 미니스는 나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나의 세일이다. 나는 다른 일 하기를 좋아하고 아이들을 남겨두고 않은 시간을 희생하였는데 주님은 이 가여운 종 요성을 인식시켜 주셨다. 아이들과 같이 세계하고 아이들은 가르치고 같이 놀아 준다는 것은 나의 큰 과제일 것이다. 이들 세부의 아이들은 생명 귀중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라고 있으니 나는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선교사의 직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 나는 이웃사람의 친구로서 선교사 역을 하고 있다. 시간을 내어서 이웃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친구로서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생명 공부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개방하므로 인하여 이웃 가정들의 자녀 12명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내가 한번은 이웃 여인에 놀서 화를 내고 아단을 친 때가 있었는데 이 이웃에 는 이웃 사람들이 매우 친한 성감을 되었다. 나는 나의 선교사 역에서 이남방을 일은 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이웃 가정에 찾아가서 사과하였다. 이 일이 오히려 모든 이웃 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들과 계속 친교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다. 나는 주의 가정 주위의 이웃 사람들에게 선교사인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 곧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선한 이웃으로서 선교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 노력하기로 다짐해 본다.

(「Worldwide Thrust」에서)

○ 어린이 위한 이야기 ○

어느 죄수의 신앙간증

나는 감옥안에서 오랫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고아였습니다. 부모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도 없습니다. 어떤 집에서 데리다가 기르주고 학교에 다니도록 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배우질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좋아도 없었고 말주는 것도 않았습니다. 친구들도는 모도 주의이었고, 훌륭한 주자님의 성교에도 아무런 생각없이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니가 장그러니 교회에 들어가서 있었다가 들고는 떨어나서 나왔던 것입니다.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나의 죄를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죄는 한 죄를 범하자 그만에가 말로 할 수 없는 큰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체포되어 한 말 없는 나에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죄수들의 험상궂은 감시 속에 생노동을 하였습니다. 담은 높고, 밤에는 큰 전기등을 비췄습니다. 나보다 선한 사람도 있었고 더 악한 사람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은 많았지만 자유는 아주 적었습니다. 친구들이 면회 오기도 했고, 전도자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감옥안에 있는 교회에 가끔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건만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여자 전도자가 왔습니다. 그 여자는 「라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했는데 나는 교회 종을 맞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야 할 기간은 아직 길게 남아 있으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가장의 경기고 있습니다. 나는 그 후 선한 죄수가 되려고 노력했고 전주들을 증명했습니다. 나의 죄는 사람 앞에서는 지금 그 일을 아직 갚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았습니다.

(이 글은 앞에 이국의 어느 감옥안에 있는 한 회개한 죄수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편집자.)

◇ 시 ◇

움 직 임

박 병 철

1. 주구를 스리는
한 주님,
정진을 위하……
이국(異國)은
인신의 모방에서
그
힘을 얻는다.
오직
영원에
이르기를 인증하라.

2. 세르스의
그치지 않는
교리도 위
도가(道家)의 위기……
순간의 인주,
이가에의 순교는
그
대(代)를 잇는다.
신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3. 한 시간의 여름
지기 보르는
성령은 위기여……
이 너의 죄는
나사로의
힘이,
천에가
하늘에로 들어가는
것이
주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4. 나라인 순인
나사라인 증을 위
달려드는 기이에……
일월인 세계
그 뜻을 세고,
바다에 있는
은장들
주의 비밀들이오니
받음에로
이루어지이다. (세락실)

◇ 수 필 ◇

직 장 과 나

차 신 욱

지금생활을 하는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면에 많이 지중하게 되는 것을 느끼곤 한다. 마치 말대로 주위가 가장 세력하고 경제하여야 할 인조주의, 나아가서는 광학주의에 빠져 버릴 때가 많다는 생기이다. 교회에 와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교인스로만 여기지고 세상의 마치 하늘나라인양 느끼지기도 하지만, 막상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마다 다르겠으나 며나름에로의 고뇌라는 것이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직장에는 누가 신자이고 누가 불신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모든 사람을 불신자로 간주하고 대하여 때에 따라서는 나 자신도 불신자인양 행동하려고 할 때가 있기도 하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교회를 열심스로 다니는 분들을 알게되어 그럴 때마다 내주 기쁜 마음을 지금 한에서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기쁨은 그 순간으로 끝나버리기가 일쑤다.

교회에서 교인을 대하면 모두가 한 결혼고, 따라서 영원히 신앙적인 대화를 일삼는데 나는 수 있으나 직장인스로 돌아오면 교회에서라는 말대 그런 지위를 이편하기가 힘들며, 오랜 세로가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에서는 성도와의 대화보다도 불신자와의 대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오래 주일날이면 교회에 가야 하나 기쁨에는 지나치지 못 동생을 강조하는 나이롱(?)교인이 있어 주일만 다녀이 있는 경우는 흔은 그에 그에의 기분에 따라 교회에 빠지기를 자주 속 되풀이다. 이에 시간은 이에 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일날 오후는 영일이고 자기 일에 분주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믿음이 약한 나에게 적지 않은 실가가 되어진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을 넣어주는 데도 적지 않은 어려가 있다.

항상 사회의 뜨거운 기운에게에 도전하여 새로운 사회로 변혁시키는 일이 기독교인들의 한 일일진데 어떠한 이전이 있어보도 그곳에서 주저하지는 안된 것이나 나 자신을 보면 신앙의 이전함과 거도의 주주으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주님이 약해서인지 넘어질 때가 오히려 많으니 심히 괴로운 일이다. 지난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의 고뇌를 되새기기 일쑤 일는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롬 7:19, 24-25). (존명선)

☆ 사랑을 소중하는 비결은 사랑을 주는 데 있고 그리스도를 소중하는 비결도 그리스도를 남에게 주는 데 있다.

<젊은이들에게>

치욕의 불구자

이 삼 은 전도사

젊은이들은 어리석은 생수으로부터 나온 때 거의 그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다. 인지 모름하고 어리석은 것을 뱉아 먹을 수 있을 뿐, 사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사람은 성경말씀 따라 믿음에 비길바 없는 무한대에 가까우리만큼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며 속복이다.

이것은 일반 종교으로 말하자는 축복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로써 완전한 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신령한 영에서 볼 때, 볼 것을 보지 못하며,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며, 말해야 할 때에 그 말을 못하며, 걸어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신체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불구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구자를 요구하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이미 거듭남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동시에 온전히 자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귀한 언약이다. 우리들은 모두 육적, 영적 불구자이다. 그러므로 '온전'이라는 뜻대를 향해 달음박질을 치음하여서는 아니될 줄로 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신체적 기능을 보다 증폭하지 나타낼 수 있는 자를 찾기 소원하다. 모세도 바로의 궁중에서 그 시대의 최고 학문과 무술을 습득했으며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던 사람 중의 하나이다. 이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나무랄 데가 없는 온전에 가까운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인간적인 면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에 무한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속살은 죄악에로입니까? 아니면 불구자와 비정상인의 입장 앞에 서이서 방치의 시련을 겪어 헤매하지 않 난 입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을 슬기롭고 힘찬 일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향해 쓰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무릎에 꿇할 자 치욕의 불구자의 자리에서 영광의 온전자의 자리로 힘있게 움직이지 않으시렵니까?

(성가부 지도)

<젊은이의 발언>

젊은이는 귀하다

정 홍 식

중년교회에서 자라난 신앙의 젊은이들은 너무나 귀하다. 성도들 중에 얼마동안 중년교회를 떠나 본 사람들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의 말씀이 귀하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정통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물을 잃은 고기와 같다. 교회에서 힘을 얻고 전국 일군으로 교육받는 것이다.

한 가지 가슴이픔 일은 교회에 젊은 일군과 20대 30대의 일꾼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년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 무관심하지고 방관적인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이 슬픈 것이다.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주님의 일에 힘쓰던 세대 이들 같은 주의 자녀들이 힘을 보으지 못함이 슬프다.

「윤리적이 높은 일꾼은 영성이 높다」라는 정말한 사실이 우리 교회에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교회의 조직이 커지고 교인수가 많을수록 성도관계를 맺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과 서로의 문제들을 털어놓고 참 성도의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

진지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열어 놓을 때가 온 것 같다. 왜 교회에는 후배를 사랑해 주는 선배가 없을까? 왜 선배를 따르는 후배도 없는가? 전국 일군들은 후배를 키워온 일꾼과 선배를 따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사랑과 믿음을 이끄고, 젊은이들을 이주는 일을 즐거워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선배와 후배들이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교회의 응집력을 높이는 지름길인 것 같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자. 잃어버린 순결과 공동성을 사랑으로 찾아야만 하겠다. 흩어진 성구들과 같이 성경읽는 운동은 진개하여야 할 것이다. 모퉁이진 돌이 되어서 힘을 잃지 않도록 서로 권하여 보자.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 만일 내가 희생당하고 우리 교회가 참자게 사랑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 지금까지 25년 세수를 먹어왔지만 영에 있는 생활을 살아 온 것을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거듭거듭 받아 열매맺는 생활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한다. 성경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생활한 일이가 성도생활의 근본임을 다시 깨닫고 실천에 옮기기를 노력할 뿐이다. (본교회 청년)

짐승의 표

666

존 벤드 로랜

어느 곳에나 우리 주위에는 무서운 표식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6—17절에서 「666」을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신령한 눈을 가졌다면 이 짐승의 표를 길거리에서나 집안에서나 우리 자신에게서도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어떤 인간이 하나님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과 이 세상에 속한 배교자와 적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상(이마)과 행동(오른손)을 따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에 문제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주림을 당하여 미욱 세상적인 사람이 신령함에 주의한 사람은 이해할 것입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성경은 짐승의 표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나 주림에 관련시고 라는 문제를 언급치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있는 성구를 문법의 이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계 13:16—18).

또한 계시록에 「이마」와 「오른손」에 대해 말해 준 대증구가 구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명할 것에 대해 신명기 6:8에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마는 그의 사상을 나타내고 그의 오른손은 그의 행동을 대신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해하면 신명기 6:8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게가 아니면 적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각각 그들의 속성인 사상과 행동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마에나 손에 문자의 표시를 한 것과 같이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그의 성품형각과 식의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을 관찰한다면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구별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표는 문자적이기보다 상징적이라는 것이 확실하며 그 짐승은 장도의 다르는 있으나 어느 시대에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짐승이 과거에서만 나타났다고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장래와 우리 시대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만 한다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이 짐승의 표를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짐승의 표가 주림의 사상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금전(화폐)이 여러도 주림을 도우랴과 짐승의 표 관계는 밀접 식별됩니다. 신사들에는 세사의 성적 가치가 있는 일과 심지어는 영혼까지 희생해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서 이에 대한 주요시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어서"(딤전 6:10).

짐승이 그의 표를 받아들일 사람들을 얻으려고 우리 앞에 이러므로 달아놓는 것은 돈과 은으로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세상 나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도록 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중심되고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전인 이에가 흔들릴 때에 그 때에만 짐승의 표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 받는 시대는 전에 있었으며 지금도 있으며 또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록은 사람이 하찮은 돈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필요로 상업세계에 팔리는 일에을 수모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존엄이를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유혹은 만을 때 우리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숫자들의 상징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충재〉 또는 〈완전〉이란 말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6을 따라서 불완전의 사람이로 불리울 것이며 금기이는 666까지 불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7에는 결코 도달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그 이상은 가지 못하게 확실히 당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계 14:9—10)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짐승의 표가 어디에나 보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 말을 주님의 넘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말은 미국 개혁장로교회의 교회 기관지의 말을 정확한 감도사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앞서의 참기에 게재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인)

□ 바람직한 교회 □

청지기적 봉사

천 성 덕 강도사

성경에서 청지기란 말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청지기란 말이 성경에 처음 쓰여지기는 신약에서 17번이나 청지기란 뜻으로 쓰여진 말은 성경의 세계 중에서 빛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청지기 직분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근본정신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교회는 성경말씀의 강론, 기도, 봉사, 전도의 본질적 요소들을 가졌다. 성경말씀의 강론, 기도는 내적 요소들이며 봉사와 전도는 외적 요소인즉 신속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주간의 생활이 요구된다. 그 어느 것을 과대평가하고 그 어느 것을 과소평가하여 소홀히여서는 안된다. 내적인 신앙체험의 경험 못지 않게 외적 신앙의 표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므로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어떤 특별인의 전속물이 아니며 그리스도인 모두의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 여기에 청지기적 봉사가 있게 되는 것인즉 청지기는 내 것을 관리하여 다스리는 직분이 아니라, 주인에게서부터 위탁받은 바를 관리하여 다스리는 직분이니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주님들이 모인 교회라면 청지기로서의 봉사가 있어야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인 것이다.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교회는 청지기적 봉사가 잘 실천되었던 모임을 기억해 준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행 2:44-45)하신 것은 청지기의 봉사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큰 은혜가 있는 교회에는 큰 봉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란은 다 처음있는 사람이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져야 봉사하지 못이 은혜란은 다 처음이 없으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자식이 결여되었기에 큰 봉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 보자.

나에게 있는 재능, 재물, 시간,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즉 깊이 믿어 승리할 때 봉사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맡겨 주시고 충성스러운 봉사로 일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교회에는 이러 봉사가 있을 수 있으며 많은 사 또한 등한히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달리 많이 받은 여러분과 우리교회는 청지기로 깊이 봉사하는 일에 충성을 경주하여 일할 때 자리를 찾아 지방적으로 봉사하여 있으십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

(대학부 지도)

◇단 상◇

발자국 소리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에서 입으로 전하고는 남녀의 발자국 소리,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의 발자국 소리, 길거리 나서 이해주고 싶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주고 오는 마음씨의 여인들의 발자국 소리, 모든 걱정과 근심을 벗어 던져 버리는 사람들의 힘찬 발자국 소리들은 모두가 주께 향한 마음을 조용히 만들어 줍니다.

발자국 소리들은 주위에게 많은 일을 들려줍니다. 수많의 정신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런 발자국 소리에 더욱 예민합니다. 그리고 주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불신자들보다는 오래 전부터 이런 이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는 답답한 마음을 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잘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소리를 잘 듣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들고 평안의 거닐 때도 듣습니다. 다시 예컨 동산에서 거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니시려고 오십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어 확신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일을 넘고 도시의 거리를 다니며, 일할 수의 길을 내리고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거기들에게 맡겨 주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전혀 그것에 거신을 알게 됩니다. 주께는 이러한 하나님을 보시고 있음 이에 영혼의 맑고 고침과 또한 용서하심을 알게 됩니다.

<편지문>

서독에서 온 편지

이곳 독일 젊은이의 사회를 두루 동경할 때마다, 동쪽 세계의 젊은 대양의 및 가운데서 새롭게 기독한 사회로 점점지는 우리 조국의 젊은 우리 세대에 대한 문제와 자금에, 나의 그리스도를 향한 정열의 심지에 강한 점화를 느낍니다.

오늘 세계의 기독교는 위기에 빠져 있었고, 따라서 노인들의 교회요, 죽음의 성경만 읽어 그 자체에 갇혀 어떠주리만큼 인간 문명과 과학의 세속의 이념의 제도에 의하여, 일과서 죽음의 정열을 이미 세계의 떠어버린 기독교 문화 소시만을 볼 수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한국의 사회가 물론 한국에서 젊은층의 믿기가 세력 확장에 인간임을 쓰고 있으나, 한국 성도의 적지 않는 믿음가도의 희생, 세계기도, 우리 대학 계성인들의 선교적 탐구에의 열정, 주사님들의 순수한 복음에의 증언은 확실히 『한국의 소망』으로 증명되고 있읍니다.

지식과 신앙이 그 둘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있는 것은 진리고 아니고, 인간의 인식 한계를 아는 지혜로운 과학적 지식은 그것이 소모한 신앙의 자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지식을 갖는 우리 자신을 참된 믿음화하면서, 경이롭 지식 탐구의 자세가 우리 젊은이에의 소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년 대학주는 한국 대학 계성인의 진실한 대변자의 역할과 더불어 한국 교회에 보수적 신앙의 유산과 새로의 미래에서 부흥을 예기하면서, 경험의 진리의 희만으로, 세계적 동력의 역할을 되어만 하는 한국 교회 일원에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산 믿음의 희망의 젊음을 이제 이 시상 『나』라는 신비의 자리를 위해 소모하지 않고, 세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의 진리의 『참의 나』를 위해, 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우리의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무수한 우리에게는 서양의 정신문화와 복음에 있어서 빛의 큰 우리의 세우들 순수한 복음 정신의 가공의 세주들으로 인해서, 우리 조국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신고 해야 할 『시대의 복음』을 약속받읍니다.

우리는 교회 대표 지그만 일주의 공공으로 비주고 해결하면서 한국의 중년 대학주와 세계의 젊은 형제자매들의 대학주의 이념을 영역의 세계에 파겠읍니다. 할렐루야!

김 영 한

편집자 주: 독일유학중인 김영한 씨가 대학주에 보내온 편지입니다. 독일 땅 위에 중년의 신앙을 심기에 분투하는 그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는 Yung Han Kim, 69 Heidelberg, Pfaffengrund str. 70
Ev. Gemeindehaus, West Germany

청 신 호

서른 다섯 시간 촉촉한 은혜를

20(분)×32(주)=1040(분)…주일
20(분)×32(주)=1040(분)…수요일
2(분)×32(주)=104(분)

이 계산은 지난 3월 주중의 이주 생기 『중앙의』에서 내가 얻은 놀라운 것이다. 기계문명 속에서 허덕이는 샐러리는 도시인의 생활에서 은혜의 충족함과 신앙생활의 안위를 찾을 수 있던 차, 마음껏 기도하여 소리서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남보다 35시간의 하나님과의 대화, 104장의 찬송을 드릴 수 있다면 천국문은 한층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생)

은혜의 환승가 젊은이는 어디

소록이 고은 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우렁찬 찬송소리가 들리는 듯으로 거자는 귀를 쫑긋. 결혼은 영원으로 되어버린 40대 장로님 결사님들의 찬송소리. 이중집이, 성가집이 주님께 부르고, 외치고 있는, 스스로들이 보인 다작상.

젊은이여! 젊음의 우산인 모임과 정열을 40대에게 빼앗기셨나요?

(국)

책을 읽는 성도 사랑의 원자탄

Y.M.C.A.에서 어느 모임 회의이다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주의 한 인간으로 희금받아서 좋겠어" "그래, 좋 주의한 때가 없어. 있는 사람은—"

거자의 귀는 경청하고 영혼이 조금은 흔들렸다. 어떤가 은당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한 『사랑의 원자탄』을 읽고 신앙에 큰 도움이 된 지이 있다. 우리의 생활에 『독서신앙』이라는 말이 있다. 소록이 무더무덕 가라는 여름, 책을 읽는 성도가 되어 이 좋은 성경말을 먹어 감으셨나요?

(생)

◇ 신앙 간증 ◇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은혜를

박 기 현 집사

19년 전 1951년 추석 주 이느 날 중로 하신 전이 지원 일에 전적 드리운 감격이라으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벧전 5:15, 17, 18)이라고 쓰여진 것을 전파하여 주심의 하라고 다가 말씀으로 믿고 따라 믿어 보며 "참 좋은 말이다, 생시의 말 같진가보다"라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일찍 이 조상의 조상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 제 마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생각할수록 좋은 말씀. 늘 기쁨으로 저녁에 조심하여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드릴 수 있는 생활! 이 것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의 신앙생활이리라.

그 때 11월 말 이느 주일 저녁으로 주의 교회에 나갔습니다. 주선생 오신 시보님께서 "김 정진 조사(김도사) 계신 동일교회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기에 알아보았더니 제로 지금 주의 집에서 계실 것까지 저녁의 생활교회장이었습니다. 시보님을 모시고 저를 데려를 드리고 집 앞을 이전도사님께 인사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시보님은 주선 마시면서 "수일날은 주 그 교회에 나가기라"고 교회를 지정해 주셔서 이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일을 맞지 않도록 조심하여 기다렸지요. 「네」하고 대답했으니 꼭 나가기만은 해야 이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고 만약 못 나가면 말씀 어김 죄이 되겠기 때문에 일지 않도록 기다렸다가 주일에 교회를 온지 찾아 나갔습니다.

신앙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같이 처음 오는 사람이 감히 교회를 자유로 생길 수가 없어서 맨 뒤쪽 수도들이 좋을 보고는 소리가 들리지만 말 감격에 말씀의 선배들과 하나님께 무그러워 숨다 싶이 교회를 출주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말씀이 나 하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 "보두가 옳소이다! 옳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말씀이 진리로소이다, 무지하고 어린 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신 이 은혜를!"

이후 감사함은 그 날부터 오늘날까지 19년째, 그 동안 두 아이 때 생명과 질병 주신과 지으심, 두 몸 다 세상 떠나신 님이 도로 일어서서 주일 교회에 온 나갔지만 그때는 주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속에서 1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종을 드리며 기쁨 게 근하면서 때마다 돌기와 하기 어린 이성경학교로 봉사함이 감사하여 은혜의 하나에서 주님 사업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이 은혜 감사할 뿐이다.

주님의 날을 맞아는데 동일할 때 경지으로 계주의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 주일날 조심없이 기중 지키가 라는 시험의 말을 순종하지고 있어니 6에나 없는 이런 말이 날아오는데 본감함이 심주하는 유쾌한 경 드릭이 정그러운 고지이로 소리로 금일기한 도적의 이런 자이에 세 가만 두 눈으로 놀라 지다보고 감 없이 놀라고 무엇인 광경! 나오라고 유일하니 거이나라 전이 보고만 이러는 이러이라 한 소리가 당이 입 에 보고라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좋 가운데서 자라 큰 수에서 다 나이를 보고하시던 도장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말리는 자라 에 주이에서도 보고의 주신 그 은혜, 모는 사람들은 신기하고 의한 하라고 놀랍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이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성악을 위해 기도하고 원하면 주의 소원을 들어주시어 위탁하시되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은 좋을 보내 이주시어 지팡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세월을 견뢰하게 하시고 조상도 주일날을 범치않고 기록된 날을 지키면서 주일 이름의 성경을 보내 드리면서 이말하고 권고하시 전식 위에 놓이 세워 주시어 진실이 사랑이 지키셔 주님의 들어노는 하도록 지주이 주신 이 은혜! 주시운 전지에 가 있는 날선을 늘 지켜 주시는 은혜 크한 감사합니다.

은혜에가 위대로와 하는 번 곳에 3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인간들은 무위하고 군심하지만 주의 하나님께서 말씀의 간주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 크고 자는 일들을 다 손을 가운데 지우어 주시고 주의 하셨 지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보호하시어 놓 등주신이 보호하시고 일주일에 전 감하여 길러주시는 이 큰 은혜와 많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고!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주님의 은혜 너무도 크고 만물하오니 내가 가진 것 적수로서 나의 영자 비천하고 나의 힘 약하오니 말씀 없는 이 죄인은 모든 것 주신대로 내 모습 일전 비고 주님이 알십니다. 살아신 주님의 음이로 입신의 뜻이로 쓰옵소서. 다만 이 일하 옳음 내가 주인을 생각하는 내가 이 이라는이 죽는지 산는지 주님 앞에 심판에서 주님의 뜻 따라 행하여 주님에 영광만 돌리게 됩니다.

◇◇원고 모집◇◇

본 「증언」에 실은 원고를 모집하오니 아래 요령에 의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종 류 : 시 · 수필 · 신앙 간증 · 기타

(2) 원 고 : 원고지 4~13매

(3) 보낼 곳 : 교회 사무실

<아빠의 글>

□ 가 정 예 배 □

이 황 준

참에, 가의 여인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합심하여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생활이다. 이것은, 이이기에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요 그 누구의 수고로 됨이 아니다. 그 이유는, 주전 성령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불러내셔서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온 가족이 다 함께 감사하며 신앙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의 은혜이니,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가정이 있으면 그들은 부절히 간구하여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둘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거의 대일 성경을 가르쳐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성경을 보면, "아이의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고 하셨다. 우리가 자녀교육에 힘쓰는 것은 어느 거룩 할 것 없이 다 옳지만이다. 불신의 세력이 팽창한 이 시대에서 무엇보다도 귀여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키워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칭찬되도록 힘써 주도록 자의 책임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명하기를, "아비들아……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으며, 그리 저자 디모데를 향하여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하셨다(딤후 3:15).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가두고 교육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셨다. 신 32:46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셨으며, 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 하셨다(신 6:6-7).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로 그 자녀와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리니 그를 택하셨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어 함이니라"고 하셨다(창 18:19).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도 곧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내용이다. 곧, 내 가족들과 친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알게 할 책임이 맡겨진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나타남부터 유무지면서 피차에 우리를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정생활에서 중요하고 여기에 중점되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문제이다. 오늘날 거의 대 가정에 결핍되어진이 있어서 여러 방면에 결점을 초래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게 생도의 가정에 있어서 그 어떤 문화시설이 부족이나 방해가 되고 있지 않는지? 세상 오락에 재미를 붙이는 그 심령에는 신령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무엇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딤전 5:6).

오늘날 우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도 무시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심령 문제이다. 여러분들과 어린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그 가정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므로 우리들 가정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이든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며, 거강을 초래할 만한 것은 제거되기 제거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정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가정의 부흥은 곧 교회의 부흥이요, 교회의 부흥은 곧 바로 내 민족의 살 길이며, 전국 운동의 부흥이다. (남회원)

<어린이의 글>

□ 가정예배 □

이 승 혜

우리 집에서는 가정 예배 시간을 저녁으로 정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는 언니와 오빠가 일찌기 학교에 가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다 사도신경을 외우므로 예배를 시작하지요. 성경은 한절씩 돌려가며 읽읍니다. 한 사람이 다섯 절씩 읽는데 나는 내 차례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가 읽읍니다.

나는 아직 어려서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모르기 일쑤요. 그렇지만 조금씩 배우는 기쁨으로 예배시간을 즐겁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어렵고 뜻풀이가 새로운 쓰여지서 읽기가 더 많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나더러 기도하라고 하셨어 나는 얼굴을 붉히고 멍청하게 되어 버렸읍니다. 어머니께서 대신 기도하셨지요. 나도 가정 예배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시간에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그리고 휴전선을 지키는 국군아저씨들과 월남에서 싸우는 파월장병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어 4-4)

(금) (언)

완전한 기독교교육을 자녀에게 맡기는 것은 유산(遺産)중의 가장 좋은 것이다.

<스코트>

☆ 상담실 ☆

I. 국기배례는 옳은가

국기에 대한 배례가 우상숭배나, 아니냐 하는 문제는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종교계에서도 그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읍니다. 국기에 대한 배례가 옳으냐, 주목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상숭배의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 대한 개념도 사람에 따라 각기 그 주장이 다른 것입니다.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나(고전 8:4) 우상이란 상대적인 존재를 절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탐심이나 또는 피조물을 하나님 이상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봄이 틀림없읍니다.

이러한 견해로 국기 배례문제를 생각해 볼 때 성경에 저촉이 되는 것은 십계명 중에 제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신자들은 국기를 비록 절대화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절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하간 절할 수 없다는 데서 문제가 있었읍니다. 이리하여 일정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 일장기 동방 요배의 거부로 고난을 많이 받아 왔읍니다.

1949년 5월(해방 후) 경기도 파주군 봉일천국민학교 학생 43명이 국기에 대한 배례 거부로 퇴학처분을 당하고 그 어린이들이 다니던 죽원리 교회의 당시 최 중하 목사가 천공분자로 몰아 구속된 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당시 이 승만 대통령의 고문인 윤 명구 목사의 노력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 후 손 양원 목사님의 주동으로 기교회적으로 국기배례 반대서명운동을 일으켜 마침내 1950년 4월 25일 국무회의 결의로 배례를 짓게 되었읍니다.

1950년 4월 27일 동아일보에 의하면 "우리가 국기에 대하여 존경하며 애국심을 가지는 것은 국기가 국가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인 까닭인데 종래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고 배례하는 것은 일제식이고 우상숭배 형식에 가까우므로 금번에 이를 변경하여 다만 국기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부동자세로 한 후에 오른손을 왼편 가슴 심장 위에 대기로 하였다. 그런데 군인 및 경찰관은 종전 예식대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각종 의식 때 묵도는 일체 폐기하였다고 한다"고 기술하고 있읍니다.

위와 같은 증거로 우리는 국기에 대하여 절은 할 수 없으나, 존경의 뜻으로 주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왼편 가슴에 오른손을 대는 것도 배례가 아닌 주목의 뜻으로 보아 국기에 대해 예의를 표하는 것은 나쁘지 않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국기에 대한 절은 물론 기타 기념식에서 묵도조차 하지 않아도 현행법이 살아 있는 한, 상관이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 관일 강도사)

II. 어느 책을 읽을 것인가

우리는 모두 불순하고 부도덕한 문학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언제 어디를 가나, 눈에 띄고 손에 닫는 것이 음침하고 음란한 책입니다. 큰 서점이나 작은 서점이나 길거리에서 「섹스」를 소재로 다룬 탐정소설, 연애소설, 색정소설로 가득차 있읍니다.

소설 잡지 등 간행물은 부도덕적이고 색정적인 글과 사진에 많은 지면을 제공하고 있읍니다. 대부분의 주간지나 일간 신문이 선정적이고 퇴상망측한 그림과 글을 실리고 있읍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세상의 문학가라는 사람들이 내뱉는 배설물에 정신을 팔고 살면서 순결하고 온전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험에서 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떳떳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자세를 명확히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더러운 외설물을 만지는 것이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좋아하고 어울려 즐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으십시오. 유익한 서적을 탐독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거울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비취이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눈은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우리를 자기의 귀한 피로 사신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스승과 신앙의 선배에게서 책을 소개받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윌리암 오어 박사)

◇ 단 상 ◇

고난의 명상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

*교회 뉴우스

□ 확대되는 여전도회

[illegible] 봉사뿐만 아니라 내외적인 활동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 여전도회(회장 이영주 권사)에서는 지난 5월 29일 장충교회에서 열린 주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에서 회장에 이옥순 권사, 총무에 김영화 권사, 부서기에 구영선 권사 협동총무에 정종조 권사 등 본교회 여전도회 지원 여수가 중의 자격가 되고 있다.

□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여전도회

여전도회에서는 지난 6월 18일~7월 2일 사이에, 경원도 일대 수상 교회에 보낼 구제품을 수집해 왔던 바 540여점이 모여 이제 곧 전달하리라 한다. 또 이 무더운 여름에 남들보는 일이 고되에서는 이사 마련할 계획을 맞이하여 자무 하기 학교와 수양회가 개최되는데 여기 수고하시는 분과, 그리고 학생들의 지도하시는 여전도들이 발이 동동하지 되리라 한다.

□ 78세 할머니 아기서 암송해

지난 4월 17일 서대 중앙교회에서는 경기여전도의 주최 성경암송회가 열렸는데 이날 대회에서는 78세된 할머니가 출연하시어 모인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가서 전 여섯장 중 십사위원들이 칭찬도 지지하는 감명을 새삼 새로 기억 동여했던 모든 여성도들을 놀라게 했다. 참고 보니 이날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장수의 복을 누리고 계시는 할머님은 본교의 여전도 회원이신 김영택 할머님이시라 한다. 그런데 그 할머님은 여러 차례로 2등을 하셨다.

□ 병원전도 활발히

교회전도주와 여전도회의 주최으로 중부시립 병원에는 전주의 전도사님이, 전도병원에는 동원향 전도사님이 전도활동하고 있다. 전도활동도 다양하여 입원환자의 병실전도, 심방, 전도지를 통한 문서전도 종교서적을 입원소도 신앙강좌, 병원직원들을 위하여 비례와 상담에 응하고 있다. 수 여전도사의 지극한 전동소도 병원 당국과 환자들에게 많은 신앙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남전도회 노방전도 가기로

그동안 전도인을 주어 노방전도에 힘써 오던 남전도회(회장 조[illegible] 전도)는 종하기는 기존과 함께 열심에 박차를 가해 가정전도 직접 노방전도에 나서기로 결정, 7월 9일 2시 장충사중회에서 전회원이 전도하리라 한다. 성명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달하여 주님 만 수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성경암송대회 연 남전도회

남전도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에도 힘쓰고 있는데 지난 6월 11일 열려회에는 성경암송대회를 열어 다대복을 5장을 외어 모두 12명이 출전 전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열매의 수상자들은 1등에 한상식 집사 2등에 홍금옥 집사 3등은 강명기 집사가 차지하였다.

□ 12명의 결신자 얻어

남전도회 유급전도인으로 수고하시는 김도열 집사님은 지난 5월부터 매일 계속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다. 말하는 전도인을 가지고 계시는 김 집사님은 그동안 주어진 날에도 불구하고 시내 자의 지라도, 시골적 공원 등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외치기도 하고, 지인전도도 하였는데 결실자수는 12명이나 된다고 한다.

□ 농촌 교회에 새로운 지원방법

농촌교회의 주일학교와 여름여신이 성경학교에 비한 보다 조직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위원회에서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농촌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초청하여 훈련시키기로 했다. 이번 초청 받아 훈련된 교사들이 자기 교회에서 거점지으로 주일학교와 하기학교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된 이 계획에 큰 결과가 기대된다.

□ 선교활동에 좀 더 정성을!

이는 동안 이제가 성숙되는 나라에 우리의 선교사를 보내 놓고 지원하고 있는 [illegible]교회(회장 김종필 장로)에서는 이번에 서양수 선교사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지프차 한대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모금에 있다.

주님에 일꾼 하므로 그 값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하여 온 성도가 이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며 헌금을 아끼지를 말아야만 할수록 복음이 더욱 빛나 그 영은 성숙할 것이다. 선교사를 보내놓고 지원을 방관하여 우리의 일꾼이 나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바울과 아나바를 보내어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도록 지원한 안디옥 교회를 닮은 중부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지프차 값은 140만원 정도라고 한다.

<현지 주민들과 함께 선 서만수 선교사 내외분>

*교회 뉴우스

□ 우리의 사랑을 피로써 나눠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대학전문학교 주최으로 본교의 대학부실에서 교우들의 헌혈이 있었다. 이 날 지정자생원주의 주도로 실시된 헌혈에서 162명(38,000CC)의 피를 기증함으로써 가두교인의 따뜻한 인정에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사일 지는 수혈을 필요로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호로 주어진다고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인당된 것이다.

□ 건축 위원회 소식

서로운 교회 건축을 위하여 활동하는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당해년 비에 최저년 년의 성동조주 논현동 7—11번지의 6,280평(3,000평을 제외 경과)의 매지가 결단 확보되어 있으며 새 교회 건축공사의 착공을 위한 준비에 서두르고 있다 한다. 그곳은 역전 전, 광장이고가 대동 정으로 인하여 성숙한 발전이 기대된다.

□ 장로 세 분 선출

조승룡, 이재구, 방동룡 세 분이 장로님으로 선출되었다. 지난 5월 21일 대예배시에 공로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총 투표수의 2/3 선을 넘은 세분이 선출된 것이다. 앞으로 이 세분 집수님들은 시찰을 거쳐 장로로 안수받아 시무하게 되리라 한다. 만유와 성령이 충만한 기도의 용사들로 일하여 활력 있는 성장력 있는 기도력이 기대되고 있다.

□ 안수집사로 다섯 분

금동이리교회 회임으로 일론의 안수집사를 뽑게 된 지지회에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 이금선·문동국·박광수·김도섭·이상일 다섯분의 안수집사를 지난 7월 2일 대예배 시에서 선출하였다. 그동안 본교의 시무집사로 봉사해 오던 다섯분은 이제 안수집사로 임무맡게 되는데 성도들의 기대하는 바가 크다.

□ 양성부 전도요원 훈련계획

오는 7월 11일부터 시작하여 전도요원 훈련이 지도자 양성부 주관으로 있다고 한다. 전도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그 기술을 연마케 함으로 능력있는 평신도 전도자를 양성케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데 이번 훈련에 참가할 성원들 중에서 파기 전도대원을 파송하여 5대지역의 농촌으로 전도활동을 전개케 한다고 한다. 전도활동 기일은 7월 31일~8월 5일이다.

□ 성가부 수양회 준비

성가부에서는 오는 8월중에 성가대원들을 위한 수양회를 계획하려고 한다. 여기에 참가할 회장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여성 성가대원과 청년 성가대원 그리고 대학부 성가대원들이다. 일반 성도들도 많이 참석하여 은혜받기를 원하고 있다.

□ 가족합창에 한 장로님 가족 1등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교육위원회 주최으로 대학예배실에서 가족합창경연대회가 있었다. 예년에 비하면 주일학교도 사흘 가족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일에의 1등상은 인정국 장로님 가족이 차지하였다.

□ 한국의 유사종교 비판 강의

지난 6월 18일 오후 2시 대학부실에서 100여명의 성도가 참석 「한국의 유사종교」란 제목으로 박영일 전영님의 강의를 받았다. 이에 지리한 이단 종교는 사회혼란을 틈타 세력의 우리를 이용하여 거짓종교에 대한 진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현재도 211개의 유사종교가 있으며 334만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 주일학교 교육행사

유치, 초등, 주년, 소중부에서는 7월 25일부터 3일간 여름 어린이성경학교를 개최할 예정이며, 중등부는 7월 31일부터 4일간 청상수 목사님을 주강사로, 고등부는 7월 24일부터 3일간 김인덕 목사님을 강사로, 대학부는 7월 17일부터 5일간 김 덕영 목사님을 강사로, 청년부는 7월 17일 하루동안 청상수 목사님을 강사로 각기 수양회를 개최하리라 한다. 성도들의 기도를 소망하고 있다.

□ 젊은이들 기도와 전도에 열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자각한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와 전도에 힘쓰고 있다. 매 토요일 오후 8시 지도자양성부실에서 자신의 신앙과 친구와 가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매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전도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2차월 계속된 남산 야외전도에서는 200명 이상의 결실자가지도 얻고 있다고 한다.

□ 신임부에 새교역자

신임부에서는 새 일꾼.노희일 전도사를 모셔 여전상 중요기에 만큼이 열심. 노 전도사는 본교회에 오기 전 예수교회에서 시무하였고 올해 22세로 중회신학대학 신학원수학 1년에 재학중이며 이신도회 지원 강학성으로서 학력있고 열심이 대단한 일꾼으로 알려져 있다.

□ 유치·대학부 집회실 확장

유치부와 대학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배실이 확장되었다. 그동안 인원증에 비하여 이곳은 사용에서 불편을 보여 왔으나 당회원 제를 얻어 넓혀서 6월 25일 주일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당회의 교육위원회 등 기타 회합을 할 장소가 없어서 곤란이 많았다.

○미 담○

정당한 대우 받는 비결

콘스탄스라는 어느 조그만 양장점의 점원이 있었다. 그는 성실이 적다고, 게다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불평만 하였다. 다른 곳에 취직할 것을 생각해 보기도 했으나 자기가 현재 일하는 직장이 훌륭하고 좋고 집에로 가깝고 하여 어려가지 면에서 일하기도 제일하여 다만 대우(월급)가 형편 없는 데 불평하면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하여 보기로 결심했다. 일을 시작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모든 일이 유쾌 일하게기 시작하였다. 그가 전에는 잘해 왔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보기는 과거의 그는 태만했고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됐다.

출근을 늦지 안다든지, 그의 개인의 일로 직장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관하여는 조금도 죄책감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기는 그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난 후에는 그의 시간과 물건을 함부로 쓰는 것이 얼마나 큰 일로 일하였던 것이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상점 주인은 자기 상점의 일꾼이 새로운 인물이 되는 것을 보고 월급을 좀 더 올려주게 되었다. 이 때까지 주인이 월급을 올려주게 된 것이 아니라 콘스탄스 자신이 올리게 된 것이었다.

콘스탄스의 경우처럼 우리도 대우가 나쁘다고 불평하고 살을 때 이런 생각 즉 「하나님을 위한 일」로 한 번 보십시다. 일한다는 것보다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시면 그 결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전경일 제공>

<사 설>

휴식과 피서의 계절에도 우리들의 할 일이…

무덥고 답답한 여름철에 피서하는 방법으로는 더위를 피하여 시원한 곳으로 물러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 더운 철에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 몸을 더욱 건전케 해 버리면 세상이 시원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번 여름에도 우리들은 많은 일을 해야 하겠다.

군인들이 평시에 고된 훈련으로 땀흘리면 전쟁 때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병들이다.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충분히 일하면 혹은 날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무기를 준비하지 않은 군인은 패배밖에 과한 신앙을 준비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에게는 승리만이 있을 것이다.

휴식과 피서의 계획을 세우는 모임을 벌써 우리는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대·청년 수양회 그리고 농촌교회 교사 조첩 훈련과 하기전도대 훈련, 자충 등 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와 전 노력하들과 많은 젊은 일꾼들의 젊은 주님의 아름다운 지혜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바라기는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협력하며, 물질을 아끼며, 몸으로 헌신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지난날의 믿음성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갚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편집하고 나서

○「키는 중인 이리」, 시원한 그늘을 찾기 위한 남들이 그 중인에 이른 것 같다. 벌써 여름 방학의 프로그램이 바삐도 실시하는 단체에 있으로 보다. 그 무리 교회 한 수 있을 위해 지 수행한 「이리와 어린이」 이야기의 기리의 기리를 리수해 보자.

○「학생 기도」에 여러지 않은 가운데 학우 계의 신고가 있도 지원다. 지난 주에도 다 몇 신은 「수일과 성과」를 비롯하여 이미 모든이 학 중으로 말씀 대유할 제공하여 주 비하였 이원다. 우가 이제부터 그 중에 욕 주세 가지 기도 주 것가 있을 수 있다면 「중인」지도 지의 교가 위한 수 있을 어느 것도 없다고 교가위한 수 있겠다.

○「도대 방에 「중인」지가 나타나가 반가운 의 기리와 이자의 방응이 있다. 이번 것이 그 만큼 속 지이 라고 보아 조은 해진다. 이 후 이번 호가 반주하지 유하라 해도 성 앞에 있서 계수 지만을 지원다. 「중인」을 아이고 기리 기리는 바 공동이 큰 가운 한 「중인」은 계속 가달 것이다. <조>

「중인」지를 위해 일하는 이들

직경위원 : 윤 종 순 정 도(래곤)
최 경 자 의 지 주 장 로
찬 사 : 이 동 지 주 장 로
박 진 주 전 도 사
조 진 주 전 도 사
최 계 기 자 : 정 조 선 집 사
한 한 광 조 정 선 생
는 생 명 윤 은 기 도 선 생
욱 선 생 정 선 생
선 생 생 선 생